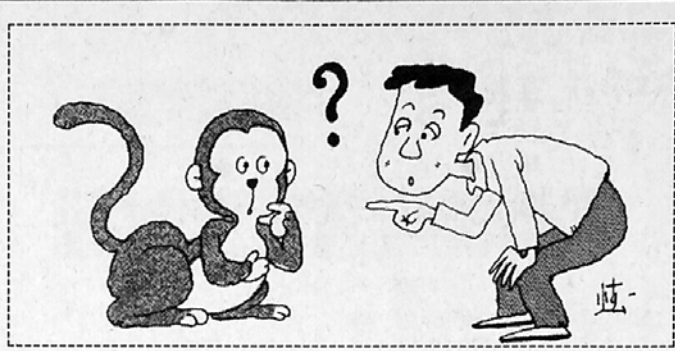


지 상 법 석

뛰는 순간 환히 열리니 ...”



없이 나아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간경 수행입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간경수행은 소리내어 경문을 읽는 종경(誦經)과 독경(講經)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독경 예배등을 부지런히 뛰는 근행(勤行)까지 포함해서 간경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장·율장·논장인 삼장 십이분교(十二分教)의 대장경 간경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입멸하신 뒤 그 교법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 제자들이 저마다 들은 것을 외워 모으고 서로 검토 논의하여 잘못된 것은 교정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여서 교법을 편집한 불사를 결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1결집은 석가여래부처님이 멸도하시던 해에 왕사성 나자기르 칠엽굴에서 마하가섭존자를 상좌로 하여 5백비구가 모여 경장과 율장인 이장의 내용을 결집하였습니다. 이를 오백결집 또는 상좌결집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갈타국 아사세대왕의 외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결집에 참가하지 못한

고 주석을 붙이는 불사를 한 것입니다. 한문문화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대장경 조성불사는 중국 북조조의 태조대왕에 의해 시작하여 개보(開寶) 5년인 서기 972년에 태종 태평 흥국 개보(太宗太平興國開寶) 8년인 서기 983년에 완성했으며 북조조 관관대장경(北齊官版大藏經)입니다. 송조의 관관대장경 조성 소식을 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제7대 목종대왕 7년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관관대장경을 구해 오고 고려에 있던 전 후이장(前後二藏)과 요나라 장본을 교합(校合)하여 새기고져 고려 제8대 현종대왕으로 부터 시작하여 덕종대왕 정종대왕 문종대왕 순종대왕 선종대왕의 6대에 이어 60여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의 경주는 물론이요 문종대왕의 왕자 의천 대각국사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고려대장경 초판 불사가 완성되어 대구 부인사에 봉안 하였으며 고려대장경 초본 판각은 1076부 5048권이 있습니다. 이 때는 강대한 요제국 거란족의 위협이

보장이 고려 임시수도 강화 선원사에서 조선왕조 초기에 한양 서대문 밖 지전사에 이운되었다가 다시 합천 가야산 해인사에 이운 소장한 고려대장경은 전639합이고 1514부이며 6805권이 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의 고려 대장경 판식이 세월이 오래됨에 대부분의 경판 판각의 철창식이 떨어져 나갔을 뿐 만 아니라 많은 자획이 마멸한 것을 본 석가여래부처법 제 68세 용성 진종조사께서는 43세시에 경판 보수불사의 원을 세우고 임(林)상공에게 수판불사를 부탁하여 임상공의 주선으로 2만량의 국고금이 영달되었고 제26대 고종황제는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담당관 임(林)씨와 강대현화상을 파견 하였으며 김성업을 별감으로 해인사 사중에서 임명 한 현장 감독은 경명, 영해 두분 스님이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는 근세의 역경의 초조가 되시었다. 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는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하여 역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진종조사

각하여 잊지 아니하는 염승(念僧)입니다. 넷째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아 불도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계(念戒)이며 다섯째는 어리석은자에게 법을 보시하고 두려운자에게 무외보시하고 가난한자에게 재물보시하며 보시는 탐착하는 마음을 여의고 청정한 공덕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염시(念施)입니다. 여섯째는 하늘나라의 과보가 청정하여 일체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염천(念天)입니다. 일곱째는 내쉬고 들어쉬는 숨을 '나' '무' '불' 명호로 숨을 헤아리면서 그 장단을 알고 망상을 제거하는 데에만 생각을 두는 염출입식(念出入息)이며 여덟째는 고요히 수행처에서 온갖 번다한 인연을 멀리하고 불도를 닦는 것을 생각하는 염휴식(念休息)입니다. 아홉째는 이몸은 인연으로 화합하여 생긴 것으로 진실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염신(念身)이며 우리네 인생은 꿈과 꼭두각시와 물거품과 그림자와 이슬과 번개와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그림자와 거울속의 영상과 같아서 언제 어디에서 어느 때에 죽음이 닥쳐올지 짐작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염사(念死)가 바로 심념의 대요인 것입니다. 4종염불의 첫째는 청명(稱名) 염불이니 입으로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관상(觀像) 염불이니 부처님의 성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상(觀像)염불이니 자비복덕 지혜가 구족하신 상호를 관상하는 것입니다. 실상(實相)염불이니 자신과 일체 만유의 진실한 자성인 법신을 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책상을 보면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혹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그것이 인조물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질문이 생명에 관한 것이 되면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왔지만, 생명의 근원에 관한 과학적인 설명을 얻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조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어 냈다는 가설이 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도 역시 우리와 같은 형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설화는 많은 경우 이러한 창조를 가능케 한 우주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인격체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

리 주변에서 관찰되는 (공 심은 데 콩이 난다) 상황을 어디까지 잡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나 하는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의 유한한 관찰 경험을 근거로 하여 얻은 명제 (때로는 심지어 우주의 시작인 시점까지) 무한 확장하여 주장한 것이 창조론이라면, 이렇게 얻은 귀납적 명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대비시켜 보자. 내 앞에 수평하게 놓여 있는 책상 위에 물 한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물방울은 정지하여 있게 된다. 이 때 그 책상은 반드시 반듯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명제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한한 관찰 경험에서 얻은 명제는 무한한 공간에서 참일 수 없다. 지구가 둥글므로, 물방울이 움직이지 않는 아주 큰 책상은 지구의 표면 모습과 같이 둥근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와 남을 함께 구하는 복밭 일구기 → 佛事수행  
呪力수행 → 악법막아 착한 법지키는 진언 독송  
지혜의 문자 읽을수록 눈이 열리니 → 看經수행  
念佛수행 → 한 생각이 청정해야 법계도 맑아져  
분별하는 마음 버리면 부처의 자리 → 參禪수행

비구들이 역시 아사세대왕의 외호에 의하여 따로 칠엽굴 밖에서 바사존자를 중심으로 결집한 것을 골의결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결집은 부처님 멸도하신 후 1백년경에 광엄성 비사리에서 아사비구의 발기로 장로 7백비구가 회합하고 계율에 관한 십사비법(十事律法)을 조사하여 바르게 하였습니다. 7백결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제3결집은 부처님 멸도하신 후 2백30여년 아소카대왕의 외호에 제수비구가 상좌가 되어 1천명의 비구들이 화씨성 파타리자에 모여 경장·율장·논장인 삼장을 확정 한 것입니다. 1천결집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의 결집은 염승결집이고 이 3차의 결집이 문자결집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제4결집은 부처님이 멸도하신 6백년경에 대월지국의 가나색가 대왕의 외호에 가습미라에서 5백명의 비구를 소집하여 협존자 세우존자를 상좌로 하여 그 때에 율행하던 경장·율장·논장인 삼장을 모아 놓

겨주하였으므로 고려국민의 한결같은 호국 호법의 염원으로 대장경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0여년쯤 경과하여 제23대 고종대왕때에 이르러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인 징기스칸의 원(元)나라 몽고족이 동서정벌의 엄청난 군사력으로 동유럽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고 그여세를 몰아서 고려에도 대거 침입하게되자 고종대왕 19년인 서기 1232년에 대구 부인사의 초조 대장경판을 불질러 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몽고군의 40년 끈질긴 공세 앞에 불굴 불요의 무서운 저항을 지속하면서도 몽고군에 의해 소실된 고려대장경 재조성을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전시하의 고려 임시 수도였던 강화부성의 남쪽 8리 해안에 선원사를 이룩하고 그 선원사 경내에 간경도감을 설치한 다음 16년동안 호국 호법의 원력과 신심의 정성을 다 기울여 고려대장경 재조성의 대작불사를 이룩하였으니 호국 호법의 성비이며, 법

의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지성화인 생활지침이 온누리에 퍼져 나가 가 간경수행의 메아리가 울려야 하겠습니 다.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멸함이 생사라 하는구나  
일념이 곧 이 한량없는 겁이라  
일념이 없으니 무량겁이 없도다  
생각이 없고 말이 없으니 무학도라 하는구나  
넷째로 염불수행은 대강 이렇습니다. 염불은 대체로 십념(十念)과 사종염불(四種念佛)을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십념의 첫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생각하는 염불과 둘째로 수행하는 법칙인 인연법 근본법 미묘법인 부처님의 교법을 진실심으로 생각하는 염법입니다. 셋째는 부처님의 교법을 받들어 수행하고 교화하는 보살승 연각승 성문승인 스님네의 공덕을 생

하늘과 땅은 부처님의 몸이요  
신과 물은 조사의 마음이로다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로다  
새는 산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노는구나  
다섯째로 참선수행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선(禪)은 생각하여 뛰는 사유수(思惟修)이다. 고요히 생각하는 정려(精慮)입니다. 마음은 육단심 연려심 집기심 견실심이 있습니다. 육단심(肉團心)은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마음이고 연려심(緣慮心)은 보고 듣는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이며 집기심(集起心)은 굳어 버린 뜻과 물들어 버린 마음인데 망상을 내는 깊은 속 마음입니다. 견실심(堅實心)은 본심으로써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입니다. 참선수행은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불성 곧 견실심을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보지 아니하고 조사님과 조사님이 서로 전하지 아니하고 조사님과 조사님의 해명법은 곧 정한 바 법이 있음이 없느니라

‘콩심은데 콩나고’ 영원불멸 믿는 창조론 ‘모든것 변한다’ 제행무상 진화론적 사고

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상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른바 진화론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그동안 창조론에 묶여 있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인류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창조론과 진화론, 그것은 우선 생명의 근원에 관한 문제를 전혀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이 명제가 절대적으로 참이어서 시간의 제약받지 않고 무한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궁극적인 조상도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창조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화론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에 선다. 진화론은 우리의 조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는 위의 우리 속담도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 절대적으로 참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즉 몇 천년 혹은 몇 만년이라는 시간의 영역에서 보면 위의 속담이 참일 수도 있지만, 보다 장구한 시간에서의 변화를 본다면 결코 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우

의 유한한 관찰 경험에서 얻은 명제는 모두 이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물도 불변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다. 이것이 제법무아요 제행무상이다. 이 원리는 하나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도 물론 성립하는 것이지만 전우주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지며, 그 한 예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흐름 즉 유전의 경우에서도 역시 성립한다. 콩 심은 데 콩나다는 관찰에 의하면 콩의 속성은 하나의 개체가 죽더라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대하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화론은 보여 준다. 생명을 시간의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관찰한다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 나고 유기물에서 원시적인 생명이 생겨나며 이 원시 생명에서 무수히 다양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명에 어떤 자성이 있어서 하나의 개체가 죽더라도 그 속성은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창조론은 사물에 자성이 있는 줄 알고 그에 집착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자>

2천만에  
개달음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국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춘천백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신경통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불면증 등 난치병을 치유  
머리는 맑아지며 의사 집중력과 판단력 증대, 피로감 감소, 놀라운 컨디션으로  
행과 기도에 좋습니다  
眞氣  
\*眞氣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眞氣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한국의 신비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3.5%, 심장질환자 92.9%,  
관절염 91.3%, 이차리튬증 91.3%, 두  
통 88.3%, 고혈압 77.8%, 관원염 67.9%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관절염 대상으로 순환억제물용 작용  
시기 임상실험 결과: 60분지 84%, 90분지  
결이 88.9%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  
냈다. (95. 2. 17)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명동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吳是空 合掌